



① 대기

2013년 4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여수시의 연간 화학물질 배출량은 946.8톤, 발암물질 배출량은 221.9톤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은 119.4톤으로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수질

여수산단에서 하루에 처리·배출되는 폐수의 양은 약 69,421톤(중흥처리장 18,518.2(㎥/일), 월내처리장 50,903(㎥/일))이다. 2012년 8월, 2013년 2월 실시된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롯데케미칼, 휴켄스, 한국실리콘, LG화학, 한화케미칼 등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거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③ 토양

2011년 11월 여수산단 이순신대교 공사현장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확인되었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폐기물 업체가 있었던 상암동의 한 부지는 아직도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묻혀있으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책임소재와 비용문제로 방치되고 있다.

④ 계속되는 환경 안전사고

2011년 1월 여수산단 정전으로 공장 20여곳 가동이 중단되고 매연 배출, 2012년 6월

한국실리콘에서 독성가스가 누출되어 42명 중독, 2013년 3월 대림산업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 2013년 5월 GS칼텍스 정전사고로 매연 배출 등 계속되는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사고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⑤ 시민들의 건강을 경고하는 많은 연구결과

- 1996년 국립과학기술원 '여천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결과 '초과발암 위험도 수준 초과' 지적
- 1997년 연세대학교 '여천공단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성 평가' 결과 '환경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초과 발암 위험 수준' 지적
- 2003년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 결과 '여수지역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12% 높고, 여수산단 어린이들의 기관지 천식은 13.7%, 어린이 피부 알레르기는 10.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여수·광양산단 역학조사' 결과 '여수·광양산단 노동자 역학조사 결과 벤젠과 1,3 부타디엔, 영화비닐(VCM)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건설노동자들은 혈액암, 구강암, 인두암 발생비가 높게' 나타남.
- 2010년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여수·광양지역 암발생률 비교 보고서' 결과 '호흡기계암 환자수가 2002년에 119명에서 2006년에는 164명으로 약 38%증가'함.

이러한 문제들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뻔뻔한 요구를 감히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입주업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한다.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훼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여수시와 청와대, 입주기업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이를 추진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광양만의 환경용량은 여수산단, 광양산단, 울촌산단, 하동화력 등에서 내뿜는 오염물질로 이미 포화 상태이다. 환경오염으로 사람이 살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 예산은 5,148억 원을 들여 5,956명의 주민들을 이주시킨 것이 불과 몇 해 전 일이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고사하고 주민들이 이주한 부지에 또다시 공장을 짓고, 공단은 날로 확장되어 시민들의 주거공간과 가까워지는데 오히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녹지마저 축소·훼손하려 한단 말인가?

산단의 경관,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오염물질의 정화, 화재 및 폭발사고 시 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호기능 등을 위한 여수산단의 녹지는 결코 많지 않다.

여수산단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계속되는 환경·안전사고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녹지를 더 늘려야 한다.

우리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여수시의 거짓과 청와대의 무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뻔뻔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여수시민, 광양민권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 1.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거짓말을 멈추고 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1.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매년 수조원의 세금만 챙겨가지 말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 1. 여수산단의 입주업체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녹지를 해제하려는 뻔뻔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여수환경운동연합

전남 여수시 신기동 20-9번지 TEL : (061) 682-0610

발행처 : 여수환경운동연합
발행인 : 정희선, 정한수, 진옥
발행일 : 2013년 9월 2일

물·맑은·동리

통권 제192호

2013년 9월

지구환경 Friends Of the Earth Korea
여수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

(555-802) 전남 여수시 신기동 20-9(2층) | 전화 (061) 682-0610 | 팩스 (061) 691-0680 | E-mail:yosu@kfem.or.kr | 홈페이지:http://yosu.kfem.or.kr

여수환경운동연합·한 살림이 함께하는 초록강좌

야생초 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낮은 책임입니다.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사물에 대한 예의.
그 예의를 느꼈습니다.
인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을이란 무엇일까요?
고맙다 잡초야.
일상을 명상으로 즐길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책을 읽다 덮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나도 한 번 해볼까? 해보고 싶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생명·평화를 꿈꿀 때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광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자 생명평화마을에서 활동하시며 영광탈핵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작가 황대권 선생님을 모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야생초 함께 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 일시 : 2013년 9월 24일(화) 오후 7시~9시
- 장소 : 여수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학동 이레타운 4층)
- 내용 : 작가 '황대권과 함께 나누는 생태이야기'

※ 알림
- 나중에 오신 분들을 위해 먼저 오신 분들은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세요.
- 음료를 준비합니다. 개인컵 가져오세요.
- 여수환경운동연합 소모임 '녹색평론독자모임'에 관심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 격주 수요일 오후에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산업폐수 해양투기 연장 반대! 전국캠페인 - 여수편 -

캠페인 7일차, 8월18일 벌교에서 여수로 출발하는 바다위원회와 함께 캠페인을 하기 위해 오전 8시 여수 YMCA 두바퀴 세상 회원님들과 함께 선사유적공원을 출발하여 (차로 이동) 벌교역에서 9시 10분에 여수로 출발하였습니다.

함차게 화이팅을 외치며 출발한 여수팀은 국도로 이동하여 순천만정원박물관에서 환경운동연합 국토생명당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한 후 기자회견과 해상캠페인을 위해 중흥부두로 향했습니다.

중흥부두로 들어서자마자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수는 울산 남동방 63km 수심 150m에 폐수오니를 버리고 있습니다. 적조가 자주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해양투기.

2014년에는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박근혜정부로 들어오면서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해양투기를 2년 더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해양수산부가 해양투기를 더 연장하려고 만들어 진 부서는 아닐텐데 말입니다.

중흥부두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박근호위원장님과 여러 회원님들이 멋진 해상 퍼포먼스를 준비해주셨습니다. 폐수를 싣고 나르는 배를 배경으로 육상, 해상에서의 퍼포먼스는 멋진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동시간 4시간 20분 / 이동거리 63km

이 긴 여정을 여수 YMCA 두바퀴세상 에서 함께해주셨기에 중앙에서 오신 캠페이너님들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위원회에서는 현재, 캠페인을 잘 끝마치고 보고까지 성공리에 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폐수 해양투기 반대에 목소리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와글와글여수환경연합
다음카페 http://cafe.daum.net/ykfem/
여수 YMCA 두바퀴세상 http://cafe.daum.net/ycycle 을 참조하세요.

사진으로 보는 '아름다운 이야기 나눔터'

2013년 7월 18일.
4년 만에 준비했던 호프에서 많은 회원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름으로만 뵈었던 회원님도 만나고
회원님들의 사랑을 등백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바쁜 외출에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는 여수환경운동연합 되겠습니다. ^^

*외골와글여수환경연합 다음카페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